

목장나눔지(26년 6월 7일 설교)

설교제목: 믿음, 결과가 아니라 동행하심을 믿는 것 / 본문: 창세기 15:1-7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마음열기

설교 말씀에 나온 '아침에 빵을 태워 컴퓨터 자판기에 가루가 다 된 이야기'처럼, 최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작게 낙심했거나 피식 실소를 터뜨렸던 **소소한 일상 속 사건**은 무엇인가요?

말씀 들어가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10년째 아들이 없던 아브람 역시 노쇠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선포하시며,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낙심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참된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여전히 자녀가 없는 낙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눈앞의 아들이 아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방패와 상급은 세상의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눔 질문 1)

아브람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수고를 다했음에도,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 문득 두려움이나 낙심이 찾아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 상황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말씀(사건과 실재)'으로 찾아와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나눔 질문 2)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나만의 '엘리에셀(인간적인 대안)'을 의지하려 했던 적은 없었나요?

3. 결과가 아니라 동행을 믿는 믿음

아브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맞추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3)

내 삶의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의 성공(별)'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동행)'을 우선시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별(결과)'이 아니라, 그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동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의 인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상황과 결과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ayer Share] 기도제목 나누기

- 1.
- 2.
- 3.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찬송가 438장



1 내 영 혼 이 은 총 입 어 중 한 죄 짐 벗 고 보
2 주 의 얼 굴 뵈 기 전 에 멀 리 되 던 하 늘 나
3 높 은 산 이 거 친 들 이 초 막 이 나 궁 궐 이



니 슬 픔 많 은 이 세 상 도 천 국 으 로 화 하 도
라 내 맘 속 에 이 뉘 지 니 날 로 날 로 가 깃 도
나 내 주 예 수 모 신 곳 이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다 할 렐 루 야 찬 양 하 세 내 모 든 죄 사 함 받
다
다
라



고 주 예 수 와 동 행 하 니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라